

완주, 기부나눔문화 조성 앞장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통기금 '3억 목표' 연합모금 협약

완주군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약칭 '전북 공동모금회')와 소통기금 조성에 한 뜻을 모으고 기부나눔 문화에 앞장선다.

군은 29일 완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완주군민모금운동인 '1111사회소통기금' 안정적인 조성과 완주 CB재단 등 모금 전문기관 협력을 위해 전북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완주군, CB재단, 전북 공동모금회 세기관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모금액 3억원을 목표로 적극 활동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완주군은 '1111사회소통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모금회에서는 연간 3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기부자의 소득공제 처리 및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CB재단에서는 기금 운영 및 모금액의 배분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전북 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은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때에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완주군의 사회소통기금 모금운동이 반가울 따름"이라며, "모금 전문기관으로써 완주군의 새로운 공약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힘쓰고 돕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CB재단과 전북 공동모금회와 함께 한정된 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협력하여 전문적인 모금운동으로 발돋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소통기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군의 1111사회소통기금은 지난 4월 출범하여 9개 단체와 기업 및 530여명의 정기후원자가 참여 5천 5백여만원이 모아졌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민이 참여하는 기부나눔 문화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 농특산물 '완전한 완주' 로 날개 달아

꽃감 · 생강 · 딸기 · 양파 등 36개 품목 브랜드 시동

완주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 안심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29일 농업단체,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열고 21개 단체가 신청한 완주군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사용승인 품목은 완주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꽃감, 생강, 딸기, 한우, 양파, 마늘, 배, 고구마, 당고추, 수박, 멜론, 토마토 등 27개 품목의 농산물과 편강, 된장, 당고추차 등 9

개 품목의 가공품 등이다.

완주군은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상표사용권을 취소·정지 시킴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브랜드 '완전한 완주'만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우수 브랜드로 정



차되어 농가 소득까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일본 규슈대학, 마을만들기 정책 연구 위해 진안군 방문

일본 규슈대학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추진사례 학습과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수집 비교분석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이어 또다시 9명의 연구진을 꾸려 진안군을 방문하였다.

방문 첫째날에는 진안군 담당자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에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시스템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 마을만들기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수리지의 마을만들기사례(외동마을)와 소득체협분야(원전장마을), 문화복지분야(봉곡마을), 경관생태분야(두원마을)의 각기 다른 유형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례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마을만들기분야뿐만 아니라 정치화, 토목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마을만들기 사업과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까지 심



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규슈대학의 하나마쯔박사는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다른 형태의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년 진안군에 방문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근삼 부군수는 "규슈대학과 진안군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두 지역 모두 살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보건의료원, 자살·치매예방 총력

무진장소방·장수경찰·장수보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장수보건복지의료원은 2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진장소방서와 장수경찰서, 장수보건복지센터와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원은 무진장소방서와 장수경찰서, 장수보건복지센터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존중의 문화울 조성하고 위기상황에 조속히 대처해 지역주민의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 이송, 치료 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업무협조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소방서, 장수군민 자살예방 위한 업무협약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영주)는 29일 장수군민의 자살예방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장수보건복지의료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위기상황에서 조속히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치료에 관계기관 협력방법,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진장소방서, 장수군보건복지의료원, 장수보건복지센터, 장수경찰서가 장수보건복지의료원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북도내 자살관련 상담은 2014년 5,838건, 지난해 5,673건, 올해 상반기 3,578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담 유형으로는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2,365건, 경제적 원인 489건, 외로움·고독 233건, 가정불화 165건, 기타 308건으로 나타났다.

/장수=고관호 기자



29일 무주군 설천면 호룡마을에서 마을음식개발 품평회가 열렸다.

풍성해진 마을축제 기대하세요

무주군, 마을음식개발 품평회 개최

무주군 설천면 호룡마을에서 29일 마을음식개발 품평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품평회는 2016 농촌관광활성화중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안성면 진원마을과 두문마을, 적상면 내창마을과 치목마을, 설천면 호룡마을에서 출품한 삼바반국수와 냉국수, 온국수, 명이나물 장아찌 밥, △불꽃밥, 불꽃면, 감자떡, 모듬 불꽃도시락세트, △머루불고기 한상, 비빔밥, 건나물류 무침, △삼삼한 상, 삼삼보양탕, 수수부꾸미, 버섯잡채, 채소튀김, 대마모주, △한술밥, 가마솥밥 & 양념장, 통김치 찜, 쌈채소 곁절이 등 음식전시의 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수 군수는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맛과 정성을 더해 만들어진 음식들이 결국 무주군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꽃을 피워 나가기 시작한 마을로 가는 축제가 앞으로 맛있고 푸짐한 음식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마을음식개발을 위해 전북 식문화진흥위원회와 국제요리학과 연계해 지난 7월부터 전채요리와 나물류, 조림, 볶음, 찜, 국, 탕 등 기초 조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편, 2016 농촌관광활성화중점시범사업은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음식개발과 숙박편의시설 조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대상마을을 선정(5곳)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기반구축, 역량강화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마을 2곳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꽃을 피워 나가기 시작한 마을로 가는 축제가 앞으로 맛있고 푸짐한 음식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마을음식개발을 위해 전북 식문화진흥위원회와 국제요리학과 연계해 지난 7월부터 전채요리와 나물류, 조림, 볶음, 찜, 국, 탕 등 기초 조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편, 2016 농촌관광활성화중점시범사업은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음식개발과 숙박편의시설 조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대상마을을 선정(5곳)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기반구축, 역량강화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마을 2곳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29일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무주군, 규제개혁 위해 나선다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무주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토론회·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에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유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무주군 각 실과소부서장 등 20여 명이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와 자치법규 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와 인허가 관련 행태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공유,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나가는데 의견도

모였다. 하성용 부군수는 "규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규제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적용되는 만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군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분야에서 11건의 맞춤형 과제를 발굴했으며, 생활환경 불편 등 생활 속 규제 16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온라인 상(<http://www.mujp.go.kr>-알림마당-행정정보)에서도 규제개혁 신고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무주군의회 이한승 예결위원장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예산활동에 들어갔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한승 의원(사진)과 부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고, 제25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원(3.3%)이 증액된 324억원 규모로 30일에 열려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한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정발전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집행부 감시 역할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추진상황 실적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29일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2016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8월말 기준 실적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적보고회에서는 9개분야 136개 정량지표중 부진 지표에 대한 실적지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부서장이 보고하고 향후 지표등급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섭 부군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정주요시책 추진의 평가에 앞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서와 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실적관리 최선을 다해주시"를 주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흥심축제 안전관리 만전

진안군은 29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 무진장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과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진안흥심축제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부군수)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아 여는 해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축제가 펼쳐질 행사장에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 교통,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한 행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마이틴 테마파크, 산악초타운, 사방제 등에서 "진안흥심, 건강을 쓴다"라는 슬로건으로 2016 진안흥심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용성조사 오도 130주년 탄탄법회

용성조사 오도 제130주년 탄탄법회가 29일 오전 10시 죽림정사에서 열렸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 주최로 마련된 이번 법회는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지도자인 백용성 조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민족통일의 염원을 발원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지역주민과 정도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용성조사 오도 제130주년을 기념하고 행적을 기념하는 행적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죽림정사에서 태어난 용성조사는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에 앞장섰으며 일본의 대각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에 힘써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8억 확보

진안군은 2017년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원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에 총 18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로 인하여 노인요양원을 3층으로 증축하고 현재 사용중인 2층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내진설계를 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원은 2005년에 개원하여 자체 운영해 오다가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60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2~3층을 확충하여 80명

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2개의 건물에서 운영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과 1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이라 보수할 곳이 많았는데 이번 예산확보로 인해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관건물이 이원화되어 각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되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 노래교실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2~3층에 요양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60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2~3층을 확충하여 80명

/진안=우태만 기자